

1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19. 11. 29.(금) 오후 4시~5시, 12층 접견실

참석 위원 : 박성용, 박성복, 김경만, 백대용, 서창호 위원 등 5인(조영숙부위원장, 장유리위원 불참, 정윤식위원장, 허찬행, 나지수위원 서면)

회사 참석 인원 : 심의실장, 시청자센터장 등 2인

1. 다음 회의 일정

- 12월 일정 : 12월 13일(금) 오후 4시, 12층 대회의실

▲ 박성복 위원

- 11월 19일 화요일 MBC국민이 묻는다 연합뉴스TV 생방송을 중심으로 지난 19일 생방송된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각각의 방송사들의 비교가 가능했음, SBS와 JTBC는 정규방송을 진행했음, TV 조선의 경우는 9시부터는 정규뉴스편성, 채널 A는 화면 하단에 시청자의견을 실시간 댓글 형태로 자막처리해서 보여줌, 기타 다른 방송사 및 종편, 보도채널에서는 동일 프로그램을 생방송을 진행. 전체적으로 연합뉴스TV의 경우 생방송 진행에 있어서 시청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방송의 매끄러운 진행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음. 방송경험의 노하우 및 경험의 미숙을 느끼게 됨, 패널의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이어질 때, MBC KBS의 경우 대통령의 답변이 시작됨과 동시에 패널의 질문을 자막처리하여 답변내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쉽게 알수 있도록 처리. 연합뉴스TV의 경우 대통령의 답변을 간략히 요약 정리하여 자막처리 하였으나 동일자막사용 시간이 대체적으로 길어서 현재 진행되는 답변내용과 동떨어진 문자처리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음. 대통령의 답변 자막과 다음 패널의 질문의 시작과 중복되어 이어지는 부분으로 집중력 분산 되기도 함. YTN의 경우 대통령의 답변 모두를 실시간 문자처리, 청각장애인을 위한 연합뉴스TV의 수하처리보다 효과적이란 느낌을 가짐, 종합적으로 이번 동일 프로그램을 많은 방송사들이 동시에 진행함으로서 비교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연합뉴스TV의 방송진행에 아쉬움이 남았으며, 시청자를 위한 배려가 세심하지 못한 부분들이 드러났음.

▲ 백대용 위원

- 편성 및 홈페이지 개편 이후 시청자와의 커뮤니케이션측명에서 콘텐츠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음. 시청자 친화적인 화면과 내용으로 재편되어 시청자 입장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에 응원을 보내 드림. 특히 홈페이지에 새로 등장한 연령별 인기 뉴스 분류는 매우 참신해 보임.

-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무척 높다 보니 정치에 관한 뉴스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였지만 그래서인지 개인적으로는 경제관련 뉴스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음. 국민이나 소비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이나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차원에서의 보도가 자주,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면 함. 그런 이유에서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난 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외여행 상품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준 "안전모/구명조끼 아예 없는 해외여

행지...안전은 뒷전"이라는 11월 28일자 보도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보도는 아무리 많아도 과하지 않아 보이니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다루어졌으면 좋겠음

-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판매나 배송 지연 문제 등에 관해 보도도 종종 제공되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유익했음, 다만 단순히 그런 일이 있다는 정도의 정보 전달식 보도를 넘어서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왜 이런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보다 깊은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음

- 11월 20일에는 한국소비지원에서 LG 건조기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음, 한국소비지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LG전자에 건조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LG전자의 의류 건조기 불량을 이유로 회사 측이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임, 위원회는 LG전자가 '무상수리'를 하고 있지만, 수리로 인한 불편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음, 이 내용은 소비자 보상과 관련하여 위자료 지급을 권고한 최초의 결정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 역사에 획기적인 사안이었음, 하지만 아쉽게도 이 내용은 11월 20일에 사이드뉴스에서 간단히 보도되었을 뿐 의미있는 보도로 다루어지지 않음, 이 정도의 사안이면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지원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사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대담이나 토론을 진행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함. 연합뉴스TV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치분야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듣고 있는데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생활경제 사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조금 더 깊은 논의와 토론을 진행한다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임.

▲ 김경만 위원

- 11.27 연합뉴스TV, 보도채널 부문 방송평가서 1위 연합뉴스TV가 방통위 보도전문채널 방송부문평가서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시청자를 반갑게 하고 있음. 방통위는 27일자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도 방송사업자 평가결과를 의결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연합뉴스TV는 500전 만점에 전년대비 18점이 상승하여 2위인 YTN을 상당히 앞섰다는 내용임. 시청자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인력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연합뉴스TV 임직원 모두에게 올 한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좋은 기운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바라고 공정한 보도전문 채널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채널이 되시기를 바람

- 11.28. 수출규제 관련 과장급 대화... 곧 본격 협의할 듯 한국과 일본정부가 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통상당국간 수출규제 관련협의를 위해 과장급 대화를 진행한다는 내용임,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결정에 따라 한일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첫단추인데요. 양국은 과장급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국장급 대화로도 이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해야 하느니, 폐기해야 하느니 찬반논란에 따라 국론이 분열되고, 미국측의 전방위 압력에 따른 우리정부의 불가피한 조건부 결정에 대해 심분 이해하더라도 또한 조건부 연기결정 이후에도 양국 정부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치열한 신뢰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착잡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음

- 그러나 양국 당국간 실무자간 협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하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좋은 합의를 도출하여 12월에 있을지도 모를 한일 양국정상회담서 일정부분 외교적 성과물을 이루어 불확실한 대외적 환경이 조금은 해소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함. 이와함께 국회서 논의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문희상 국회의장안의 보상처리안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국회서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과 피해자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합의가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논의되고 일본과의 외교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임. 이 과정에서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양국의 균형된 시각을 잘 전달하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선안이 아니면 차선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가 좋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도록 방송의 높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11.28 "내일 마지막 금통위...내년 성장률 2% 초반 전망할 듯"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연다는 소식인데여. 기준금리는 연 1.25%서 동결할 가능성과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2% 초반으로 낮출 것이라는 관측내용임. 올해 성장률도 2%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경기 역시 대단히 불투명하다는 점이 우리경제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음. 홍남기 부총리의 멘트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홍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리스크 요인등을 감안할 때 내년 회복의 정도를 가능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음. 2019년이 설상가상의 경기였다면 2020년은 회복으로 가는 길도 험악할 것 같아 답답한 마음임.

▲ 서창호 위원

- 11/24~11/26 연예인 사망 관련 보도, 사건 보도시 자살예방 상담전화 안내 자막, [사건큐브]에서 전문가(심리학 박사, 변호사)로부터 사망 경위, 악플러 처벌, 전 남자친구 형사재판 진행 상황, 성범죄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및 처벌 강화 목소리 등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다각도로 살펴보려는 시도,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에서 전문가(중앙자살예방센터 센터장)를 찾아가 베르테르 효과 예방책을 연이어서 보도. 사건 보도, 심층 분석 보도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로 인한 베르테르 효과 우려와 예방책까지 방송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다해준 것 같아서 좋았음. 점점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11/25 제주 해상 어선 사고 보도, 단순히 사건 사고 보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잇따르는 해상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 대책을 연이어 보도함. 심층 분석 보도가 이루어진 점 긍정적이며, 앞으로도 위와 같은 심층 분석 보도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1/19 [사건큐브] '결혼 반대해서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 연인', 장애인의 특성, 사건 당사자의 장애 정도 등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충분한 설명이 없어 시청자에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제목에 "지적장애" 를 기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임. 하단 자막 오기(아버지기) 등 실수를 줄이도록 주의 필요.

- 11/4-11/25 남녀북남 코너, 젊은 남녀 대학생이 출연 남북의 문화를 살펴보는 방식, 제목(남남북녀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남) 신선하나, 다룰 수 있는 주제의 한계, 내용의 신뢰도,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고 처음시도 한다면 이 주제로 장기간 지속가능할까 고민이 필요해 보임
- 밤에 9시 30분과 9시 50분사이에 뉴스투나잇 전에 정기후원 광고 등 너무 길어서 뉴스투

나잇 관련 스튜디오 잠시 보여주고 또 광고가 나가서 저도 다른 채널로 돌려버렸다. 광고의 시간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박성용 위원

- 11.7(목) 09:05 분경 뉴스에서 한국당 초선 “쇄신논의”를 현장에서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뉴스진행자와 현장에서 생중계하는 기자 간 음량차이로 현장 기자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음, 뉴스 진행자와 현장에서 생중계하는 기자 간 음량조절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됨
- 연합뉴스의 영문명인 “YONHAP NEWS”이 눈에 익숙하지 않음, 뉴스 진행자 뒷면에 나오는 “YONHAP NEWS” 용어가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음, 많은 노출을 통하여 친숙성을 제고시킬 필요성 있음, ‘Any Time, Any where 연합뉴스 TV’, 아래에는 ‘언제 어디서나 YONHAP NEWS TV’ 크로스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됨.
- 11.13(수) 22:32분경 오늘의 날씨에서 내일(수능일) 관심용어(눈, 수능일 등)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기예보를 하였으며, 특히 수능 고시별로(1교시, 2교시 등) 기온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좋았음
- 11.14(목) 12:00 뉴스에서 수능관련 뉴스가 12:40분경에 나옴, 당일 수능시험일, 수능이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사항임을 고려하면, 이를 머리기사로 다루는 것이 시청자 입장을 고려한 뉴스 진행 순서라고 생각함, 당시, YTN에서는 머리기사로 다룸, 뉴스제공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함
- 11.22(금) 22:28분경 연극공연, 방탄소년단 활동 소개 등의 뉴스가 많이 할애되었음, 특히, 연극공연 등 문화공연 정보를 금요일 저녁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좋았음

▲ 정윤식 위원장

- 정치편향 뉴스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다소 줄이고 <시청자 맞춤형/이해관계(Ego Involvement)> 뉴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임, 정치편향 뉴스(패스트트랙과 선거법, 공수처, 조국 전장관 수사, 지소미아, 북핵문제 등)는 지상파, 종편, 인터넷방송 등에서 과도하게 취재 보도, 해설 및 논평이 많음, 따라서 다른 언론과의 차별화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시청자 맞춤형 뉴스는 시청률이 올라갈 수 있는 주제 및 어젠다임, 교육문제 자사고, 외국어교, 국제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문제 정시, 수시 비율문제, 경제뉴스(민생문제) 집값 : 재건축 상한제 논란, 청년실업 및 노인 층 일자리 문제, 기업 동향, 종부세, 상속세 등 세금문제 지방뉴스 주말 관광코스 : 1박 2일 저비용 관광코스 먹거리 및 맛집 소개, 역사 및 민속 스토리텔링, 지방뉴스 및 이벤트 소개, 사회문화 문제 연예인 악플 및 자살 문제, 군 모병제 아날로그형 신드롬, 송가인 신드롬 (TV조선), 놀면 뭐하니? (mbc 유산슬 트로트), 자연인 (MBN)
- 국민이 묻는다(19일 PM 10: 00) 특집 프로그램 평가,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연합뉴스 TV가 바로 평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음,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함, 연합과 YTN만 다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연합뉴스 TV 가 2-3시간 짜리 대형 특집으로 정치인, 학자, 시민들을 초빙하여 문대통령 전반기 국정평가와 함께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더 바람직 했을 것임, 연말 연초에 대형기획(가제: 한국사회의 진단과 처방)으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특집 프로그램

램을 제안함

- 뉴스 앵커 및 외부 해설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바 지속되길 바람, 여의도 1번지 (18 일 PM 3:55)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행보 문제에 대해 김경민(경희대 객원교수) , 김성완(시사평론가) 해설은 의미있었다고 평가됨, 방송전반에 걸쳐 앵커들의 역할과 프로그램 소화능력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음. 앵커들에게 방송진행의 자율성, 뉴스 편집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뉴스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함 : 내부 경쟁 유도
- 앵커 배경화면에 Yonhapnews가 보이는데 굳이 영어 표현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 . 예를 들면 "한국뉴스의 중심 -연합뉴스 TV" 와 같이 회사 슬로건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임
- 공익 봉사단체 광고의 유사성 문제, 연합뉴스 TV 주요 광고주가 공익 봉사단체(예 : 세이브더칠드런 등)가 많은데 대체로 광고 내용이 대동소이함 기아, 질병에 걸린 아동들이 주로 등장하는데 장기적으로 광고를 보다보면 그 내용이 식상하고 천편일률적이라 차별화가 안 됨, 광고주의 결정사항이지만 연합뉴스TV와 협의하여 협찬 및 지원 후의 아동들의 맑은 모습,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모습 등 긍정적이고 발랄하고 생동감 있는 광고 메시지도 전달할 필요성이 있음, 연합뉴스 TV만의 독창적인 광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광고수입도 늘릴 방안은 없는가 궁금함

▲ 허찬행 위원

- 연예인 자살보도에서 사망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자살보도준칙이나 보건복지부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충실한 보도가 이뤄졌다고 생각함, 구하라씨 자살보도를 하면서 클로징에 자살예방을 위한 문구를 삽입한 것은, 연합뉴스TV 타 방송사에 비해 선도적으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자살예방이나 상담 관련 문구가 작고 노출시간이 짧아, 일반 시청자에게는 전달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함. 차후 노출 시간이나 크기, 화면 배치 등을 좀더 개선했으면 좋겠음.
- 중요 국제행사에 대한 시의적절한 해설과 생중계가 돋보임, 2019년 11월 25일(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막을 두고 엄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이재 한국 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장이 패널로 출연해 이번 정상회의의 의의, 아세안의 경제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 아세안 회원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관계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다루면서,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안 회원국들의 국제사회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맥락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해설해주었다고 평가, 국제뉴스가 주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국가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우리에게 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해서는 외교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뉴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우리나라와 외교적, 경제적으로 어떤 교류를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에는 왜 필요한지를 해설해주는 뉴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이런 측면에서 해당 의미를 잘 해설해주고 있다고 평가함, 또한 11시경 YTN을 비롯해, 종편4사, 지상파3사가 원래 편성된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을 때, 연합뉴스TV가 유일하게 LIVE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발표 등을 중계해 줌. 만일 한·미 정상회담이었다면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다른 방송 채널들도 해당 내용을 생중계를 했을 것임. 하지만 이날 연합뉴스TV를 제외하고는 다른 방송사들이 정상회의의 의미를 짚어주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요 발표에 대해 생중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TV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평가 할 수 있음.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보도를 계기로 향후에도 연합뉴스TV가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무역, 문화적 교류 등에 대한 뉴스 비중을 확대하였으

면 좋겠음

- 시청자게시판에 최근 들어 연합뉴스TV를 시청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시 글들이 증가하였음, 하지만 여전히 시청자 의견에 적절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연합뉴스TV 시청자 의견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면 좋겠음

▲ 나지수 위원

- 재밌는 프로그램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전형적인 뉴스보도 사이에 재미있고 유익한 시도라고 보임, 2020년을 관통할 트렌드 '멀티페르소나, 오팔세대' 등 새로운 단어나 트렌드를 알려주고, '문턱낮춘 주택연금제도'를 담당자가 소개 해주는 등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함. 인터뷰어가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시청자가 궁금해할만한 질문을 해주면 더욱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거라고 기대함.

- 1127 NEWS20 동물, 재물 아닌 생명' 동물법안이 여러건 발의되었지만, 통과된게 없다. 현상보도 뿐만 아니라 통과되지 못한 이유 등도 보도해주면 좋을 듯 직접 분석이 어렵다면 동물단체의 멘트라도 하길 바람.

- "기존 주차장 반이면 돼요. 초소형 전기차" 서울기준 700만원정도 보조금. 수요자들의 가장 주요 관심사인 대략적인 가격을 알려주면 좋을듯, 가격대비 보조금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됨